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 지역경제



- 56**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일자리 많은 충북을 만들어요!
- 58**    **산업별 취업자**  
충북의 일자리, 2차산업 비중이 작고 3차산업 비중이 높아
- 60**    **연령별 취업자**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 62**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경제 규모변화를 보여주는 GRDP
- 64**    **사업체 현황**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도소매업은 감소
- 66**    **광업, 제조업체 현황**  
광업, 제조업체는 꾸준히 증가
- 68**    **석유류 소비량**  
주로 자동차, 난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 70**    **소비자 물가지수**  
술, 담배 가격은 오르고 통신비는 줄고
- 72**    **무역수지**  
수출 150억 달러 무역수지 연속 흑자

#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63.9%**

실업률

**2.6%**

안정기조 유지

일자리 많은  
충북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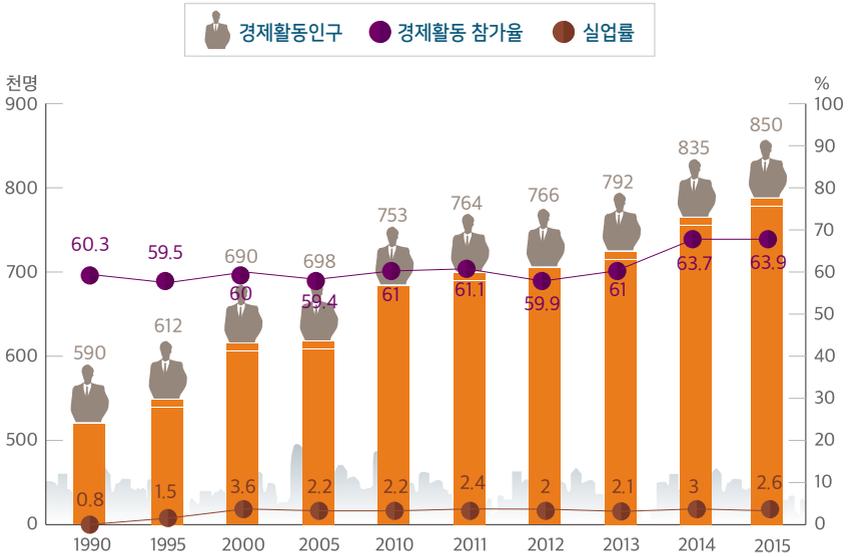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133만1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도 59만명에서 828천명으로 4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전국 63.5%)이고, 실업률은 2.6%(전국 3.5%)로 전국 평균(2016년 7월 기준)에 비해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의 인구 증가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높은 것은 충북에 일자리 증가로 인해 인구 유입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업률 감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유도 등의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충북에서는 희망더하기 취업특강이나 5060세대 취업지원컨설팅과 같은 구직자 취업지원과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으뜸인재 채용대행서비스와 같은 구인기업 채용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일자리 취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년 실업', '취업난'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용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계	취업자	실업자			
1990	978	590	585	5	60.3	388	0.8
1995	1,028	612	603	9	59.5	416	1.5
2000	1,150	690	665	25	60	460	3.6
2005	1,175	698	682	16	59.4	477	2.2
2010	1,236	753	737	16	61	482	2.2
2011	1,250	764	746	18	61.1	487	2.4
2012	1,279	766	751	15	59.9	513	2
2013	1,298	792	776	16	61	506	2.1
2014	1,311	835	810	25	63.7	476	3
<b>2015</b>	<b>1,331</b>	<b>850</b>	<b>828</b>	<b>22</b>	<b>63.9</b>	<b>481</b>	<b>2.6</b>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9**만명  
광공업 **17**만**4**천명  
사업간접자본 및 기타  
**56**만**4**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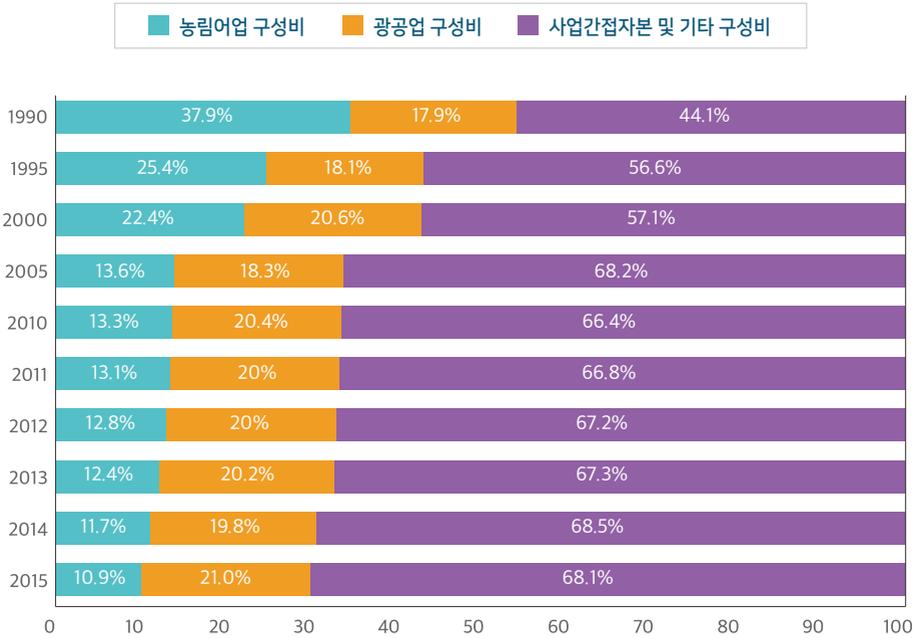
## 충북의 일자리, 2차산업 비중이 작고 3차산업 비중이 높아



충북의 산업별 취업자비중은 농림어업(9만명), 광공업(17만4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56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0년에는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의 비중이 각 37.9%, 17.9%, 44.1%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10.9%, 21.1%, 68.1%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북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농림어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데 비해 2차 산업(제조업)과 3차산업(44.1%)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자 증가율은 1990에 비해 4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은 59.5%가 감소한데 비해 2차산업은 65.7%, 3차산업은 11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산업구조가 10.0%, 43.9%, 46.1%(2013년 기준)으로 볼때 충북의 2차산업(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양질의 근로조건을 나타내는 2차산업 취업자 비중이 작은 대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2차산업 일자리 비중을 증가시키는 형태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1990	585	222	37.9	105	17.9	258	44.1
1995	603	153	25.4	109	18.1	341	56.6
2000	665	149	22.4	137	20.6	380	57.1
2005	682	93	13.6	125	18.3	465	68.2
2010	737	98	13.3	150	20.4	489	66.4
2011	746	98	13.1	149	20	498	66.8
2012	751	96	12.8	150	20	505	67.2
2013	776	96	12.4	157	20.2	522	67.3
2014	810	95	11.7	160	19.8	555	68.5
<b>2015</b>	<b>828</b>	<b>90</b>	<b>10.9</b>	<b>174</b>	<b>21.0</b>	<b>564</b>	<b>68.1</b>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취업자

50-64세 **30.8%**  
40-49세 **24.6%**  
30-39세 **19.8%**  
15-29세 **15.1%**  
65세이상 **9.7%**



##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충북의 연령별 취업자는 50-64세(30.8%), 40-49세(24.6%), 30-39세(19.8%), 15-29세(15.1%), 65세 이상(9.7%)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비교시 취업자의 고령화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207.7%), 50-64세(65.6%), 40-49세(63.2%), 30-39세(71.9%)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15-29세(0.8%)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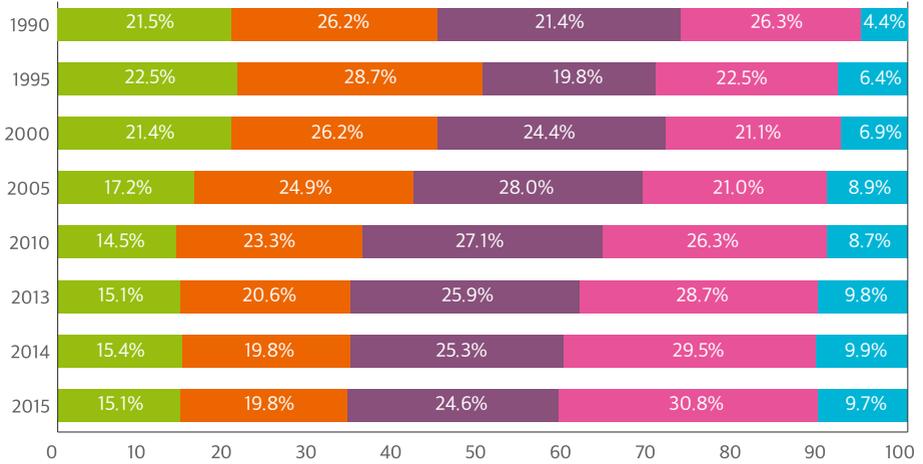
가장 좋은 노후대책이 일자리는 말이 있듯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령층 일자리(행복한 일자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도내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5060세대 취업지원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인터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노후대책은  
일자리!

15-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64세 구성비 65세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90	585	100	126	21.5	153	26.2	125	21.4	154	26.3	26	4.4
1995	645	100	145	22.5	185	28.7	128	19.8	145	22.5	41	6.4
2000	665	100	142	21.4	174	26.2	162	24.4	140	21.1	46	6.9
2005	682	100	117	17.2	170	24.9	191	28.0	143	21.0	61	8.9
2010	737	100	107	14.5	172	23.3	200	27.1	194	26.3	64	8.7
2013	776	100	117	15.1	160	20.6	201	25.9	223	28.7	76	9.8
2014	810	100	125	15.4	160	19.8	205	25.3	239	29.5	80	9.9
<b>2015</b>	<b>828</b>	<b>100</b>	<b>125</b>	<b>15.1</b>	<b>164</b>	<b>19.8</b>	<b>204</b>	<b>24.6</b>	<b>255</b>	<b>30.8</b>	<b>80</b>	<b>9.7</b>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충북통계연보

# 지역내총생산 (GRDP)

2014년 기준

충북 GRDP

**49,7190**억원

전국 대비 **3.4%**

## 지역경제 규모변화를 보여주는 GRDP



지역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2014년 기준으로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9,7190억원으로 전국 대비 3.4%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5년에서 2014년의 기간동안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1,50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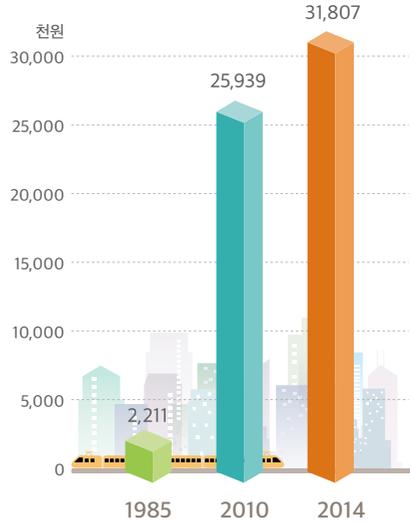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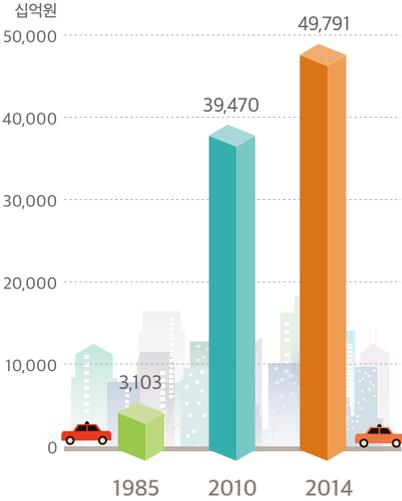
1985년 충북의 1인당 총생산은 2,211천원으로 전국 2,21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국 대비 충북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2014년에는 전국 29,460천원에 비해 1,347천원 많은 31,80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치는 같은 기간 전국 성장치 1,230.6%보다 높은 1,338.6%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의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의 전국대비 지역내 총생산(GRDP)은 30년째 3.4%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이란 시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역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해요.

도내총생산

1인당총생산



구분	도내총생산(십억원)		전국합계 (십억원)	1인당총생산(천원)	
	충북	전국대비(%)		충북	전국
1985	3,103	3.4	90,350	2,211	2,214
1990	6,079	3.0	201,737	4,425	4,706
1995	14,640	3.3	437,585	10,369	9,704
2000	20,343	3.2	638,030	13,613	13,573
2005	27,576	3.0	920,028	18,580	19,112
2010	39,470	3.1	1,265,146	25,939	25,605
2011	42,489	3.2	1,330,888	27,619	26,736
2012	43,628	3.2	1,377,041	28,146	27,538
2013	47,402	3.3	1,430,255	30,406	28,480
<b>2014</b>	<b>49,791</b>	<b>3.4</b>	<b>1,485,505</b>	<b>31,807</b>	<b>29,460</b>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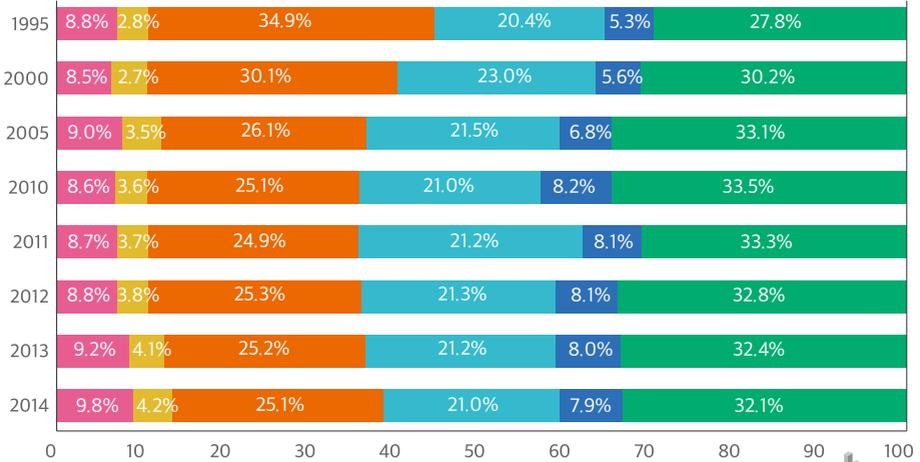
총 사업체 수  
**119,499**개,  
총 종사자 수  
**620,557**명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도소매업은 감소

충북의 사업체 수는 119,499개, 종사자 수는 620,557명이며 남성(58.4%), 여성(41.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9.8%), 건설업(4.2%), 도소매업(25.1%), 숙박음식업(21.0%), 교육.보건.사회복지업(7.9%) 기타(32.1%)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으로 남녀 성비는 2000년 59.3% vs. 40.7%에서 2014년 58.4% vs. 41.6%로 여성의 비중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8.8→9.8%), 건설업 (2.8→4.2%), 도소매업(34.9→25.1%), 숙박음식업(20.4→21.0%), 교육.보건.사회복지(5.3→7.9%), 기타(27.8→32.1%)로 각각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152.5%), 교육보건 사회복지(148.1%), 광업 제조업(1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소매업은 2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총 사업체수 (개소)	총 종사자수 (명)	총 사업체수 산업별 구성비(%)					
			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보건/ 사회복지업	기타
1995	84,876	393,854	8.8	2.8	34.9	20.4	5.3	27.8
2000	94,736	416,695	8.5	2.7	30.1	23.0	5.6	30.2
2005	97,142	450,265	9.0	3.5	26.1	21.5	6.8	33.1
2010	105,756	533,545	8.6	3.6	25.1	21.0	8.2	33.5
2011	109,256	551,917	8.7	3.7	24.9	21.2	8.1	33.3
2012	112,650	569,550	8.8	3.8	25.3	21.3	8.1	32.8
2013	115,611	591,509	9.2	4.1	25.2	21.2	8.0	32.4
<b>2014</b>	<b>119,499</b>	<b>620,557</b>	<b>9.8</b>	<b>4.2</b>	<b>25.1</b>	<b>21.0</b>	<b>7.9</b>	<b>32.1</b>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 수 **2,838**개,  
종사자 수 **150,256**명,  
생산액 **66,405,715**백만원



## 광업 · 제조업체는 꾸준히 증가

충북의 광업, 제조업체는 사업체 수(2,838개), 종사자 수(150,256명), 생산액(66,405,715백만원), 부가가치(25,677,0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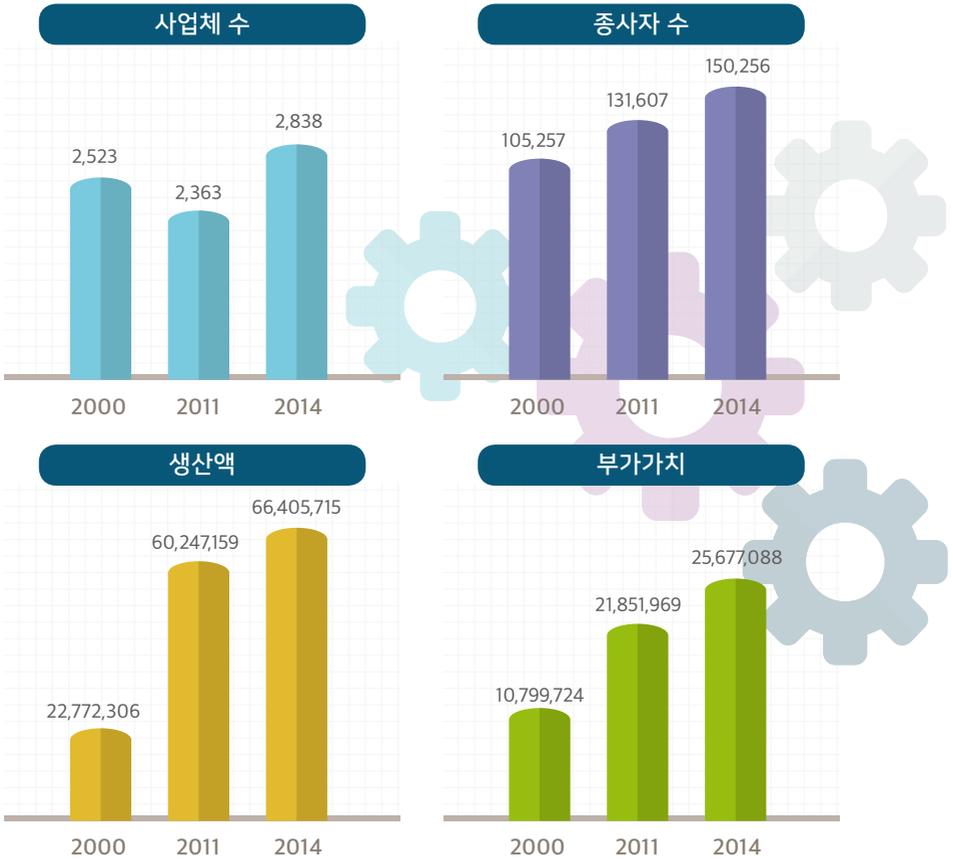
2000년과 비교해보면 사업체 수(12.5%), 종사자 수(42.8%), 생산액(191.6%), 부가가치(137.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증가한 점은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한 점도 고무적인데 지역의 광업 제조업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생산액에 비해 부가가치액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측면에 대한 지속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업체 수 12.5%, 종사자 수 42.8%  
생산액 191.6%, 부가가치 137.8% 증가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2000	2,523	105,257	22,772,306	10,799,724
2005	3,030	114,656	31,451,819	13,669,699
2011	2,363	131,607	60,247,159	21,851,969
2012	2,354	131,272	59,749,395	21,723,935
2013	2,616	139,025	63,437,396	23,767,513
<b>2014</b>	<b>2,838</b>	<b>150,256</b>	<b>66,405,715</b>	<b>25,677,088</b>

자료 : 통계청 「공업·제조업통계조사(10인이상)」

※ 2005년도 까지는 종사자가 5인이상, 2008년도 부터는 10인이상 자료임

## 석유류 소비량

경유 **7,448**천 배럴

휘발유 **2,928**천 배럴

등유 **1,055**천 배럴

벙커C유 **201**천 배럴

주로  
자동차, 난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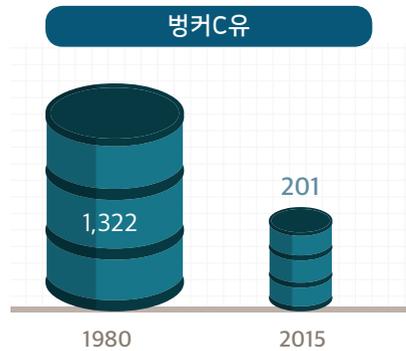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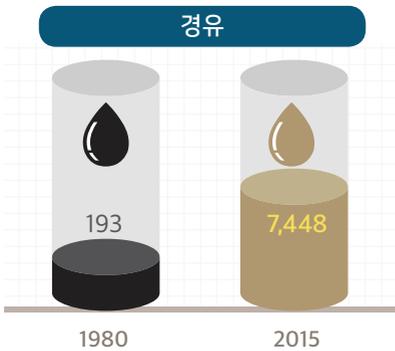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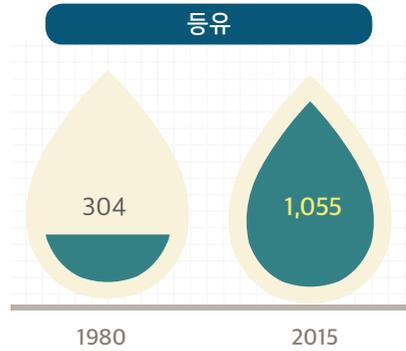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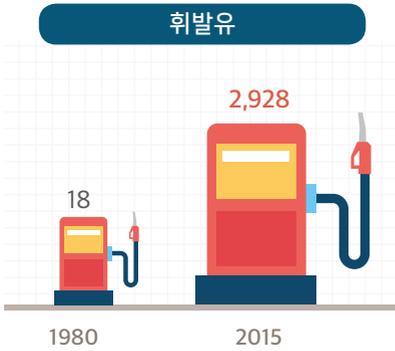


총복의 석유류 소비량은 11,632천 배럴이며, 종류별로는 경유(7,448천 배럴-%), 휘발유(2,928천 배럴-%), 등유(1,055천 배럴-%), 벙커C유(201천 배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 소비는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휘발유(16,167%), 경유(3,759%), 등유(24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 급등은 역시 자가용 보급 급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난방용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벙커C유 사용량은 84.8%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LN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난방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저공해 에너지 활용이 본격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유류 소비 절감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천배럴

구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병커C유
1980	1,838	18	304	193	1,322
1990	7,030	816	989	3,515	1,709
1995	10,952	2,065	2,281	5,433	1,173
2000	7,962	1,746	2,328	3,053	836
2005	11,938	2,327	2,454	6,713	445
2010	12,436	2,627	1,920	6,447	1,442
2011	11,802	2,651	1,592	6,457	1,103
2012	11,790	2,713	1,392	6,772	913
2013	11,876	2,805	1,197	7,073	800
2014	11,198	2,791	977	6,945	484
<b>2015</b>	<b>11,632</b>	<b>2,928</b>	<b>1,055</b>	<b>7,448</b>	<b>201</b>

자료 : 한국석유공사, 충북통계연보

#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 · 비주류음료 **78.2%**  
주류 및 담배 **113.7%**  
의류 및 신발 **58.6%** 증가

술, 담배 가격은 오르고  
통신비는 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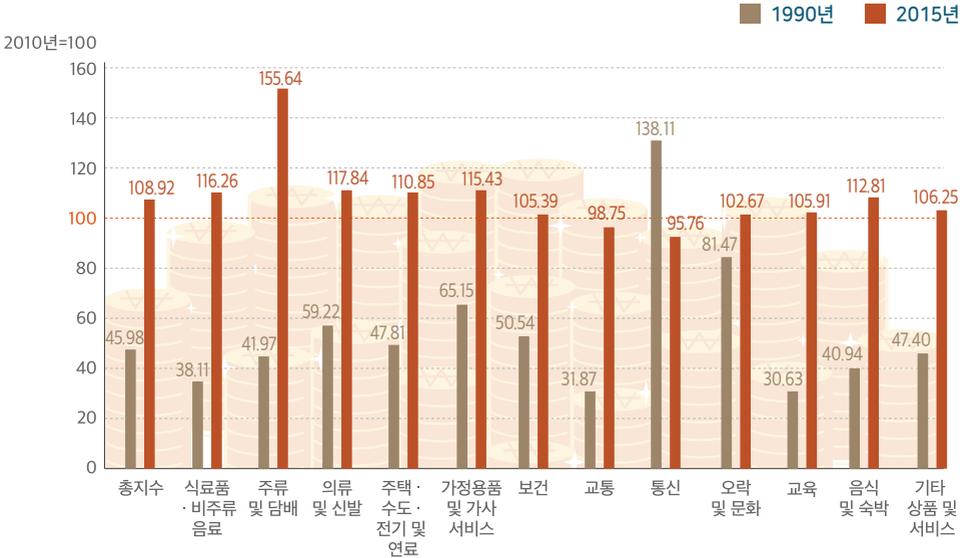


총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2010년 100 기준) 1990년(45.9), 2000년(73.8), 2010년(100.0), 2015년(108.9)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상승세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증가세는 식료품 · 비주류음료(78.2%), 주류 및 담배(113.7%), 의류 및 신발(58.6%), 주택 · 수도 · 전기 및 연료(63.0%),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50.3%), 보건(54.9%), 교통(66.9%), 통신(-42.3%), 오락 및 문화(21.2%), 교육(75.3%), 음식 및 숙박(7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58.9%)로 나타났다. 주류 및 담배가격의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통신비는 오히려 4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및 담배가격 상승은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올린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신비의 인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예요!



기준 : 2010년 = 100

구분	총지수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990	45.98	38.11	41.97	59.22	47.81	65.15	50.54	31.87	138.11	81.47	30.63	40.94	47.40
1995	60.73	52.09	54.83	70.18	61.17	79.29	62.59	49.20	133.89	92.62	50.15	61.11	56.51
2000	73.84	63.21	73.13	76.72	77.36	83.58	76.26	70.17	125.17	100.39	66.76	70.03	66.24
2005	85.88	80.32	97.08	85.54	89.48	88.89	91.07	83.06	105.99	98.74	81.13	83.95	75.80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10	100.00	100.00	100.00	100.00
2013	107.80	113.87	104.08	111.62	111.93	110.25	103.46	109.98	95.90	102.98	103.94	108.50	100.81
2014	109.08	114.84	104.31	116.15	114.47	112.56	104.12	108.78	95.89	103.16	104.96	110.15	104.10
<b>2015</b>	<b>108.92</b>	<b>116.26</b>	<b>155.64</b>	<b>117.84</b>	<b>110.85</b>	<b>115.43</b>	<b>105.39</b>	<b>98.75</b>	<b>95.76</b>	<b>102.67</b>	<b>105.91</b>	<b>112.18</b>	<b>106.25</b>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조사」

# 무역수지

2010년 수출

**100**억 달러,

2015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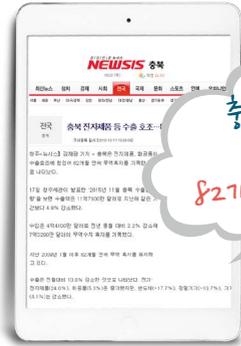


## 수출 150억 달러 무역수지 연속 흑자

충북의 무역수지는 1990년대 만성적자를 나타냈으나, 1995년 흑자로 반전한 이후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5년 1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정도로 수출은 지속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의 경우 수출보다 비중은 작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왔으나, 2010년 이후 50-60억 달러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무역수지가 흑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충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SK하이닉스 등), 이차전지(LG화학 등), 태양광(한화 큐셀 등) 등 대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입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무역흑자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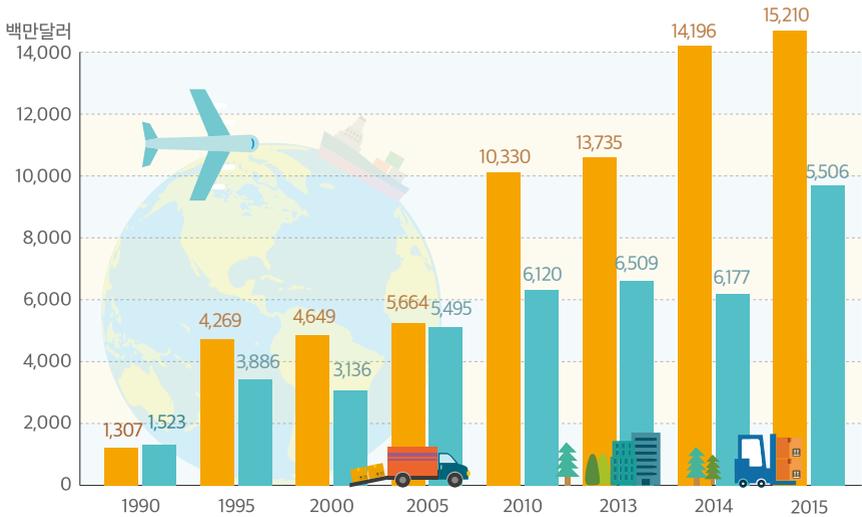
충북의 무역수지는 소수 대기업 주도로 전개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충북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  
82개월 연속 무역흑자

청주세관이 발표한 '2015년 11월 충북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입은 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해 7억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출처:청주 뉴시스

■ 수출 ■ 수입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수출(A)	수입(B)	무역수지(A-B)
1990	1,307	1,523	-218
1995	4,269	3,886	383
2000	4,649	3,136	1,513
2005	5,664	5,495	169
2010	10,330	6,120	4,209
2013	13,735	6,509	7,226
2014	14,196	6,177	8,019
2015	15,210	5,506	9,7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충북통계연보